연 구 논 문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의 최근 성과와 과제

안 승 모*

목 차

Ⅰ. 머리말
Ⅱ.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Ⅲ. 발굴보고서
1. 제주 고산리 유적 2. 울진 죽변 유적
3. 가덕도 장항 유적 4. 울산 처용리 유적
5. 울산 황성동 유적 6. 고성 문암리 유적
7. 인천 중산동 유적 8. 김천 지좌동 유적
Ⅳ. 단행본, 도록, 박사학위논문
Ⅴ. 학술지 논문
1. 편년
2. 주거지, 취락과 거주 전략
3. 생업과 환경 4. 기술
5. 교역과 교환 6. 매장과 의례
7. 설명과 방법론 8. 주변 지역 비교연구
Ⅵ. 취락 변동과 탄소연대
1. 시기별 주거지와 취락 수 변동
2. 탄소연대의 시간적 분포
Ⅶ. 맺음말

* 원광대학교

국문요약

본고는 2012년부터 최근 4년간의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 성과를 요약하며, 특히 한국신석기학회 주도의 학술대회, 발굴보고서, 단행본, 개별 논문을 취합하여 신석기시대 연구자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발굴보고서는 50여권 이상이 간행되었는데 이 중 학술적 중요성이 특히 높다고 생각되는 유적 7곳을 선정하여 조사 성과를 소개하였다. 가장 이른 토기와 마을의 흔적이 찾아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제주도 고산리 유적, 매장 및 의례와 관련된 증거가 찾아진 조기~전기의 울진 죽변, 울산 처용리, 부산 장항 유적, 골제 작살이 박힌 고래 뼈가 발견된 전기의 울산 황성동 유적, 신석기시대 경작유구가 최초로 보고된 중기의 고성 문암리 유적, 중서부 도서에서 후기 취락 양상을 대표하는 인천 중산동 유적, 덮개형 소성가마가 확인된 후기의 김천 지좌리 유적이 그 대상이다. 발굴된 유적에서는 대부분 지형분석, 동식물 유체 분석을 포함한 고환경분석도 실시되었다. 논문은 주로 편년, 취락 구조와 거주 전략, 농경을 주제로 하였으며 탈과정주의적, 인지과정주의적 연구는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끝으로 누적된 탄소연대 자료를 이용하여 취락과 인구의 장기적 변동을 분석한 필자의 논문도 소개하였다.

▌주제어▐

신석기시대, 성과와 과제, 한국신석기학회, 발굴보고서, 방사성탄소연대

Ⅰ. 머리말

신석기시대 연구 성과는 한국신석기학회 주도로 편찬된『한국 신석기문화 개론』(중앙문화재연구원 2011)에 잘 집대성되어 있다. 특히 신석기시대 연구 성과를 꾸준히 정리하여 발표하여 왔던 신숙정의「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전망」은 그의 최근 글(2013b, 2015)과 더불어 이번 발표 주제에 가장 적합한 글이다. 한국상고사학회 2015년도 학술대회에서 이영덕(2015)은 유물과 생업에 대한 학사적 검토를 하였고 소상영도 2015년도 한일신석기문화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석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밖에 편년, 취락, 유물 등 신석기문화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자들의 학사적 검토가 있었다. 또한 금번 학술대회에서도 환경, 동식물 유체, 유물, 주거지와 취락에 대한 발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2년부터의 연구 성과에 한정하여 학술대회, 발굴보고서, 단행본, 논문을 취합하여 연구자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일부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Ⅱ.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신석기시대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와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신석기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1990년에 결성된 한국신석기학회(구 한국신석기연구회)는 매년 꾸준히 정기, 비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와『중서부지역의 신석기문화』, 2013년도에는『남한의 신석기 유적 재검토』, 2014년도에는『한국 신석기시대의 편년과 지역간 병행관계』, 2015년도에는『경기도의 신석기문화』와『한반도 중동부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주로 편년, 취락, 생업, 그리고 지역별 양상이 다루어졌다. 2012년도 학술대회인『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는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한국신석기대『토기의 문양과 기종』(2012.10),『토기의 형식과 양식문제』(2013.05),『석기의 분류와 제작방법』(2014.05)을 주제로 집중토론회도 실시되었다. 또한 2년마다 한국과 일본 구주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신석기시대 공동학술대회도 지속되었는데 2013년에는『한 · 일 초기 신석기문화 비교연구』를 주제로, 2015년에는 한일 양국의 주요 발굴유적 성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 한국신석기학회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2.05,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의 문화양상」(박근태)

「남해안지역 융기문토기의 편년」(하인수)

「동해안지역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의 층위검토」(고동순)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 상대편년의 종합과 병행관계」(임상택)

「중부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의 변화와 의미」(구자진)

「동아시아 조·기장 기원연구의 최근 동향」(안승모)

「남부지방 중기 생업문화에 대한 연구」(최종혁)

「남한지역 말기 즐문토기의 양상과 전개」(이동주)

○ 한국신석기학회·서울대학교박물관, 2012.11, 『중서부지역의 신석기문화』.

「중서부지역 단사선문에 대한 연구」(정우진)

「신석기시대 중서부해안지역의 어로와 토기」(이영덕)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해안지역의 취락의 석기조성 양상」(유지인)

「14C연대측정치의 고고학적 활용방안 검토」(소상영)

○ 복천박물관 · 한국신석기학회, 2013.11, 『남한의 신석기유적 재검토』.

○ 한국신석기학회 ·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4.11, 『한국 신석기시대의 편년과 지역간 병행관계』.

「한국 신석기시대 초창기~조기의 편년」(박근태)

「한국 서북지방과 중서부지방 편년의 병행관계」(古澤義久)

「신석기시대 전기의 한반도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병행관계」(김은영)

「한국 남부지방과 중서부지방 후 · 말기 편년의 병행관계」(이동주)

「14C연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신석기시대 편년」(소상영)

「중국 동북 科尔沁(커얼친)지역 신석기시대 문화 편년」(김상훈)

○ 경기도자박물관 · 한국신석기학회, 2015.09, 『경기도의 신석기문화』.

「중부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구자진)

「경기도 신석기시대 환경과 생업」(소상영)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편년」(이혜원)

「임진강 유역의 신석기시대 취락유적」(강세호)

○ 한국신석기학회 ·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2015.11, 『한반도 중동부지역의 신석기 문화』.
「중동부지역의 중기 토기와 편년」(고동순)
「지경리 유적 및 주변 유적의 토기 압흔 연구 성과」(조미순)
「중동부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와 생업」(윤정국)
「중동부지역 신석기시대 취락」(신동민)

Ⅲ. 발굴보고서

신석기시대 유구나 문화층이 포함된 유적 50여 곳의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었다. 필자가 모든 발굴기관의 보고서를 확보한 것은 아니기에 실제 유적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중 필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학술적 중요성이 특히 높다고 생각되는 유적 일부만 아래에서 소개한다. 가장 이른 토기와 마을의 흔적이 찾아진 초창기의 고산리 유적, 매장 및 의례와 관련된 조 · 전기의 죽변 · 장항 · 처용리 유적, 고래 사냥의 증거가 제시된 전기의 황성동 유적, 신석기시대 경작유구가 최초로 보고된 중기의 문암리 유적, 중서부 도서에서 후기 취락 양상을 대표하는 중산동 유적, 덮개형 소성가마가 확인된 후기 지좌리 유적이 대상이다. 고산리와 지좌리를 제외한 나머지 유적은 모두 고환경분석이 실시되었다.

1. 제주 고산리 유적

고산리 유적의 1990년대 발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가 석기와 함께 출토되었으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움집 등 정착을 위한 항구적 구조물이 없으며 석기도 식물 가공 도구와 어로 도구 없이 수렵용의 화살촉 위주였다. 토기와 화살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였으나 신석기시대의 또 다른 특징인 마제석기와 정주는 출현하지 않았기에 구석기시대 이동식 수렵채집 생활의 연속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하였다.[1] 그러나 2012년도부터 발굴에서 움집이 많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사라졌다. 2014년에 발간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발굴에서 주거지 27기, 수혈 303기, 야외노지 9기, 구상유구 2기 등 다양한 유구가 발견되

1) 안승모, 2011, 「신석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중앙문화재연구원 편, 서경문화사), p.82.

어 정착생활이 시작되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한 석기에서도 갈판·갈돌·고석과 어망추가 발견되어 견과류 등의 식물성 자원 가공과 바다 자원의 획득도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석재에서도 용결응회암, 규장암, 쳐트는 남해안에서 유입된 것으로 결상이식과 함께 교류의 증거이다. 출토 토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산리식토기의 태토 분석에서 억새속 보강제가 확인되었다.

고산리 유적 연대는 기존에는 토기 TL 연대인 10180±65 BP만 간접적으로 보고되어 문화층을 덮은 아카호야 화산재 층의 연대를 감안하여 상한은 10,000 BP, 하한은 6400 BP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막상 고산리유적의 목탄 탄소연대는 외국저널에만 보고되었고[2]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으며 수천 년이 넘는 연대 폭 때문에 고산리식토기 연대 설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OSL 연대 측정결과 생토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은 9000 BC 이전에 퇴적되었고 고산리식토기는 7500 BC, 융기문토기는 6300 BC로 측정되었다.[3] 목탄 탄소연대의 결합연대는 7790-7510 BC (95.4%), 7690-7540 BC(68.2%)로 보고되었다. 연대측정 결과를 보면 서기전 5천년기 후반에도 유적이 점유되어 일부 유구는 이 시기에 해당한다. 발굴보고서에는 아쉽게도 고찰이 생략되었는데 고산리유적 발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제주고고학연구소 등 다른 기관의 발굴보고서가 간행되는 시점에는 충실한 고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산리 유적의 발굴성과에 기초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신숙정(2013a)은 고산리식토기의 존재를 기회로 토기 출현을 신석기시대의 지표로 삼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신석기시대 시작이 만빙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유럽에서 설정된 신석기시대 개념을 동북아시아에서만 바꿀 수 있을지 주저된다. 신숙정(2013b)은 고산리유적에서 주거지 중복과 중첩이 많이 보여 시간에 따른 취락의 단계적 발전상을 찾는 것이 과제라 하였고 석기는 제주 후기 구석기 말기의 석기 제작 수법이 초기 신석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울진 죽변 유적

죽변 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2)에서는 해안으로 돌출된 구릉 곡부 말단에서 신석기 문화층 다섯 층이 확인되었으나 유구는 수혈 2기와 구상유구 1기뿐이다. 유적의 탄

2) 러시아의 Kuzumin이 1만년 전에서 6천년 전에 걸친 시기의 고산리 탄소연대를 외국 저널에 보고하였는데 필자가 저널 명칭과 논문요약을 적어놓은 화일을 분실하여 구체적 정보는 제시하지 못한다.
3) 이하 탄소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BP는 미보정연대, BC는 보정연대를 의미한다.

소연대는 Ⅳ층에서 6530・6920 BP, Ⅲ/Ⅱ층에서 6200~6100 BP가 측정되어 서기전 6천년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자돌구획, 적색마연, 절견발 등 독특한 기형이 보이는 죽변식 토기, 얼굴 모양이 새겨진 토기 손잡이와 얼굴모양 토제품, Ⅳ층에서 출토된 통나무배와 노가 본 유적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다량 출토된 갈돌・갈판, 석부류 등 석기의 층별 출토상황을 보면 채집활동에서 어로활동으로 생업의 중심이 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배는 환목선으로 녹나무로 만들었다. 녹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섬에 서식하는 상록활엽수로 당시 기후가 현재보다 온난하였던 것 같다. Ⅴ층(1문화층)은 원형의 발이 도치된 상태로 출토되고, 굴지구, 석창, 장대형석부가 한 곳에 모아진 상태로 출토되어 생활면 또는 의례와 관련된 장소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오산리식토기와 결합식조침도 출토되어 오산리식문화와의 교류관계를 증명한다.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2013년에 조사한 죽변리 15-68번지도 문화층만 확인되었고 기존 후포리 유적도 무덤만 발견되는 등 취락의 흔적을 울진 해안에서 아직 찾지 못하였다. 보고서에는 구릉의 남서사면에 취락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으니 꼭 찾아지길 기대한다.

3. 가덕도 장항 유적

장항 유적(한국문물연구원 2014)의 문화층은 총 11개층으로 IX층을 경계로 하부인 XI, X층은 신석기시대 전기의 육성층, 상부는 중-말기의 해성층이다. X층의 탄소연대는 5290±50, 5470±50 BP이다. 전기는 집석유구(XI층), 수혈과 주혈(X층), 묘역(IX층), 중기 이후에는 집석유구가 조성되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출토 인골에 대한 형질분석(김재현 외),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식생활 양상(신지영 외), 동물유체(최종혁), 패류(유은식), 토기・토앙・안료 분석(한민수 외), 고환경 변화와 석지 석재 및 흑요석 분석(한국지질환경연구소), AMS 측정결과가 부록으로 실렸고 이러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고찰과 함께 별도의 권으로 발간되었다. 고지형 분석에 따르면 7천년 전 무렵 모래사주 상면에 집석유구가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6천년 전의 해침 이후 유적이 폐기되었으며, 59~5200년 전 사이에 해안선이 형성된 후 해수면이 하강하고 안정이 유지된 중기부터 다시 집석유구가 조성되었다.

유적은 섬의 북서쪽 외딴 곳에 위치하여 취락과 격리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XI층에서 19기, X층에서 14기가 확인된 집석유구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연접, 중복 축조되었는데 이는 선대 유구와 연결하기 위한 의식적 행위, 즉 계승의식으로 추정

되었다. 집석에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어 공헌하고 묘역과 경계에 다량의 토기를 파쇄하였다. 총 158기가 확인된 수혈도 제사 관련 유구로 추정하였다.

장항 유적에서 특히 중요한 성과는 토광을 별도로 파지 않고 만든 묘역에서 48기의 인골이 네 개의 군으로 나뉘어 발견되었고 인골에 대한 과학적 분석(김재현)도 진행된 것이다. 인골은 남성 16구, 여성 15구, 유아 9구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유소아는 주로 남성과 인접하여 배치된 것도 독특하다. 사망률은 유소아가 가장 높고 40대, 30대, 20대 순이며 10대가 가장 적다. 10·20대는 여성 사망률이, 30대 이후는 남성 사망률이 높고 50대는 남성 위주이며 가장 나이가 많은 70대는 여성이다. 평균수명은 40세로 추정되었다. 신장은 남(9구) 158.4±4.25cm, 여(8구) 146.7±6.46cm의 작은 키로 일본 조몬인과 유사하다. 기존에 안도와 연대도 패총 인골의 신장이 남성 164.8·167cm, 여성 159.6·161cm로 추정된 것과 대비된다. 장항패총의 장법은 대부분 굴장으로 다리를 꺾어 하반신 전체를 상반신과 함께 묶은 독특한 방식이라 가덕도식 굴장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대퇴골이 발달하여 육체적 노동량이 많았으나 치아 부식이 없고 영양실조와 관련된 특이 사항이 없어 안정된 식량을 섭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인골의 스트론튬 동위원소와 DNA 분석을 통해 출계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4)]

인골 동위원소분석(신지영 외)에서 바다자원의 비중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다른 유적에 비해 개체간 차이가 큰 편이나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다. 외이도골종은 여성 2구, 남성 1구에서 확인되었다. 이중 40대 여인인 1호 인골은 패천 12개가 부장된데 반해, 합장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인 2호 인골은 외이도골종이 없고 토기 2점만 부장되었다. 유적에서 부장품은 패천이 가장 많고 옥제와 골제 수식, 석부·조침·작살 등의 석기도 소량 출토되었다. 패천과 옥제수식은 군집 4곳마다 20대 이상의 극히 제한된 인골에만 부장되었다. 즉 소유가 제한된 위세품적 성격을 갖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집단 내 서열이 존재하고 재화가 불평등하게 소유되어 계급사회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연대도나 욕지도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복잡화나 서열사회를 논할 수 있어도 계급사회라는 용어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능력에 따른 획득지위이지 세습지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부장품, 외이도골종, 장법 모두 나이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

4) 방송(2014년 9월에 방영된 KBS파노라마 코리안 이브 등)과 신문을 통해 가덕도 인골에서 유럽인의 모계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동남아시아 선주민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관련 논문이 학술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미리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4. 울산 처용리 유적

바다가 보이는 구릉성 산지의 사면에서 발견된 처용리 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12)은 I구역에서 수혈 9기, II구역에서 매장유구 16기, 수혈 13기가 조사되었다. 장축 135- 230cm의 타원형 수혈인 매장유구는 유구 구조와 내부 시설, 부장유물을 근거로 추정하였으나 토양 성분 분석에서 유골과 관련된 특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남는다. 장축 84-416cm의 수혈유구는 매장유구 주변에 분포하며 일부는 생활관련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론되었지만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토기 양식에서 전기로 편년되었으나 탄소연대 자체는 4390 BP, 3915 BP로 중·후기의 연대를 나타낸다. 본 유적은 1호 매장유구에서 석부와 함께 출토된 결상이식 때문에 유명해졌다. 보고서에 수록된 「울산 처용리 출토 결상이식에 대한 고찰」(임승경)에서 처용리와 안도의 결상이식은 형태적 특성에서 중국 장강유역 결상이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론하였다.

5. 울산 황성동 유적

황성동 유적(한국문물연구원 2012)에서는 수혈 1기, 야외노지 6기, 노지군의 유구도 존재하나 융기문·자돌압인문토기와 석기, 골각기 등 유물 대부분은 문화층에서 수습되었다. 보고서에서는 고환경변화와 동물 유체, 패류 등 자연유물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 해수면 변동 등 고환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안지대의 A구간에서 해발 -1.8미터 이하의 Ⅷ층은 연안 사질점토층, Ⅶ층은 하성자갈층, Ⅵ층은 조간대 사질점토층으로 층마다 패류, 동물뼈 등의 자연유물이 토기, 석기, 골각기와 함께 퇴적되었다. 특히 2pit의 Ⅵ-3층에서 견갑골과 경추에 골제 자돌구가 박힌 고래 뼈 2점이 발견되었다. 하구의 B구간에서 Ⅸ층과 Ⅶ층은 조간대, Ⅷ층과 Ⅵ·Ⅴ층은 하성층으로 야외노지와 노지군은 하성층에서 확인되었다. 전기는 해수면 변동으로 조기 층이 바다에 잠기고 육성층 위에 유구가 조성되었다. 토기 형식에서 B구간 Ⅸ, Ⅷ층은 조기, Ⅴ층과 A구간은 전기로 편년되었으나 탄소연대는 B지구 Ⅷ, Ⅵ층과 A지구 Ⅶ층은 4360-4100 BC (5280-5500 BP), A지구 Ⅵ층은 3890-3830 BC(4700-5090 BP)로 측정되어 전기에 해당한다. A구간은 고래 등의 처리 장소, B구간은 고래 기름 채취를 비롯한 가공과 처리의 장소로, 지름 44-66cm의 소형 노지 20 여기가 모인 노지군은 식량자원을 간단히 조리하던 곳으로 추론되었다.

동물 유체에서는 고래가 가장 많고 사슴을 제외한 육지동물과 어로·수렵구는 매우 적다. 본 유적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골제 자돌구가 박힌 고래 뼈의 발견이다. 포경의 직접적 증거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고래 유체를 직접 분석한 최종혁은 두터운 지방층과 근육층을 뚫고 미추와 견갑골에 골촉이 박히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사냥이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 박혔거나 고래를 많이 얻기 위한 주술적, 제의적 의도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황성동 유적 고래의 획득과 이용」이란 제목의 보고서 고찰에서는 귀신고래의 유영 습성, 고래사냥의 민족지 자료, 두개골과 하악골 등에서도 작살이나 자돌구 흔적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포경에 의한 획득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기의 어느 시점부터 해수면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고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6. 고성 문암리 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문암리 유적 보고서는 발굴내용과 고찰은 2013년에, 자연과학적 분석은 2014년에 별도로 간행되었다. 자연과학적 분석은 지형, 식생, 농경, 토기와 석기, 뼈의 다섯 섹션으로 구분되었다. 01 지형편에는 고지형 환경분석(이홍종), 고환경 및 지형발달과정(류춘길·박영숙), 지형과 퇴적층 발달과정(최광희), 3차원 지형복원(곽종철·고용수), 02 식생편에는 화분분석(박지훈), 탄화목재 수종(김민구), 7호 주거지 탄화목 수종(송지애·김순관), 03 농경편에는 추정경작층 토양(이희진), 경작층의 식물규소체(류춘길·최미경), 식물 유체 및 전분(이경아), 토기 압흔(조미순외), 04 토기와 석기편에는 토기의 과학적 분석(한민수외), 석기의 재질 분석 및 산지추정(좌용주), 05 뼈편에는 동물 유체 분석(김건수)이 수록되었다. 고고학 발굴에서 실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문화재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립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2013년도 발굴보고서의 고찰도 상기 자연과학적 분석의 주요 내용을 고고학적 해석에 흡수하였다.

여기서는 신석기 중기 단계의 농경 문제만 다루겠다. 문암리 유적에서는 해수면 하강으로 해안 사구의 배후저지가 육화된 이후 조성된 경작유구가 2개 층이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에는 상하층 밭 모두 신석기시대에 속할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절대연대 측정과 신석기 유구 중첩에서 최종적으로 하층 밭은 신석기시대 중기, 상층 밭은 철기-조선시대로 추정하였다. 하층 밭은 이랑과 고랑을 갖춘 일반적 밭 형태 외에도 방형, 장방형

의 소구획으로 복합 구획된 독특한 구조가 나타난다. 중기 유구의 작물유체 분석 결과 조, 기장, 콩속이 미량 검출되었다. 쌀과 밀도 한 알씩 검출되었으나 분석자(이경아)는 후대 종자의 유입으로 보았다. 토기 압흔분석에서도 조, 기장, 들깨속이 확인되었다. 반면 하층 밭 토양의 식물규산체 분석에서는 벼의 식물규산체가 다량 검출되어 벼농사 존재가 추론되었다.

그러나 하층 밭의 벼 식물규산체는 상층 밭의 벼 식물규산체가 비나 생물교란 등의 요인으로 하강하여 퇴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조은하 2014, p.16). 실제 경작유구의 토양미세형태분석(이희진)을 보면 상하층 모두에서 쇠똥구리, 지렁이, 개미 등에 의한 토양교란현상이 풍부하게 관찰되었으며 퇴적물 입자의 공극도 커서 상층에서 경작된 벼의 식물규산체가 하층으로 하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발굴보고서를 보면 토층 분류에서 하층 밭은 Ⅶ층이고 상층 밭은 Ⅱ층이라 간격이 큰 것 같지만 실제 대부분의 지점에서 하층 밭 Ⅶ층 위에 바로 Ⅱ층이 피복하고 있다. 하층 밭에서 맥류의 식물규산체와 메밀 화분, 그리고 소뼈가 확인된 것 역시 후대 교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층 밭 자체가 실제 신석기시대 경작지였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소구획된 밭 형태 자체도 낯선 형태이고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6호 주거지가 하층 밭을 파고들었기에 층위적으로 증명되었다고는 하나 6호 주거지는 내부조사가 미실시되었기에 신석기시대 것이라는 증거는 미약하다. 후대 유구가 신석기시대 문화층을 파괴하고 조성되었을 수도 있으며, 화분분석이 실시된 F구역의 절대연대측정에서는 하층 밭에서 후대의 연대(2010±40, 1830±40, 1380±40 BP)가 나오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상층 밭의 연대가 철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너무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상하층 밭 전체의 시기 소속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발굴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의문점을 나열한 것이다.

한편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2014년 1월에 『고성 문암리 유적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토기의 성격(하인수), 어로활동(이영덕), 경작활동(윤호필), 지형과 지질학적 특징(류춘길), 종합정비계획 및 활용방안(박준범)이 발표되었다.

7. 인천 중산동 유적

기존 발굴보고서는 자연과학적 분석을 도판 뒤의 부록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찰에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한강문화재연구원의 최근 발굴보고서는 자연과

학적 분석을 부록이 아니라 본문의 고찰 앞에 싣고 분석 결과를 고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인천 중산동 유적(한강문화재연구원 2012)이다. 보고서 V장의 자연과학적 분석에는 영종도 일대 신석기시대 제4기 지질과 환경변화(김주용), 고고지자기학적 연구(성형미), 식물유체 분석(이경아), 토기 압흔(김성욱 외), 갈돌·갈판의 사용흔과 잔존전분 분석(카미조), 토기의 재료학적 특성 분석(이찬희 외)이 실려 있다. 식물유체, 토기압흔, 갈돌·갈판 분석 모두에서 조와 기장이 확인되었으며, 갈판에 잡곡의 탈각 기능도 있음을 밝혔다. 토기 분석에서는 태토에 따라, 취사용, 단순 저장용, 액체저장용으로 기능을 달리함을 밝혔다.

자연과학적 분석에서 특히 흥미로운 김주용의 글은 홀로세 초부터 중기까지 한강 하류와 영종도 일대의 일반적 지표환경 변화 증거를 신석기 유적 입지특성 정보와 결합하여 신석기인들의 적응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는 지표환경 변화는 수백 년 주기의 세부 시기별로 해수면변화, 기온변화, 강수량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다중지시자로 연계시키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홀로세의 전지구적 시기 구분과 동아시아 권역에서의 기후변화와 지표환경 변화에 관련하여 신석기 유적군의 분포양상과 시기를 중첩해볼 필요를 강조하였다.

고찰도 취락(오승환), 토기(김효진), 석기(김경진), 굴지구의 수혈 굴착실험(김성욱)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산동 유적에서는 21지점에서 주거지 10기, 야외노지 7기, 수혈 58기, 23지점에서 주거지 21기, 야외노지 20기, 수혈 339기가 확인되었는데 두 지점 모두 주거지는 1~4기의 주거지가 무리를 이루며 독립적으로 분포한 '散開群集'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바다가 보이는 구릉에 작은 주거군이 모여 전체 취락을 형성하였다. 주거지 탄소연대는 2900-2500 BC에 집중되고 있으며 야외노지와 수혈은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도 존속하였다. 취락 고찰에서는 23지점의 7호와 14호 주거지 출입구 사이에 마을길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공공장소로서의 광장과 길을 추론한 부분이 주목된다. 석기분석에서도 단순한 형식비교에서 탈피하여 석기 구성, 돌감의 선별적 사용, 석기별 특징(사용흔, 마모), 갈돌과 갈판의 제작기술 및 기능까지 살핀 점이 강점이다.

토기는 고찰에 실린 유구별 집성표와 본문의 내용이 다르다. 발굴에서 출토된 토기 일부분만을 본문에 수록하였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한강문화재연구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발굴기관들이 출토 유물의 일부만을 보고서에 기재한다. 발굴자에 의해 임의로 선별된 토기 자료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가 상대편년에 이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출토 유물 모두를 수록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시간상, 예산상 한

계가 있다면 고고학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공통된 선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김천 지좌동 유적

감천의 지류 충적지에 위치한 지좌동 2-1구역(대동문화재연구원 2012)에서는 신석기 후기의 주거지 6기, 야외노지 5기, 수혈 16기와 토기요지 7기가 발견되었다. 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에서도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다. 2기가 세트를 이루거나 단독으로 조성된 토기요지는 길이 3.8-8.9m, 폭 1.2-1.7m의 구상유구로 단면은 U자형이며 장축방향으로 목탄 열이 잔존한다. 이는 최종 단계에서 초본류를 덮어 소성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구상유구 형태의 토기가마는 초기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 단계에 나타났는데 지좌동유적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출현한 것이다. 배성혁(2013)은 피복식 또는 덮개형 소성법이 적용된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요지를 지좌리식 토기요지로 설정하였다. 보고서 고찰에서 토기 형식으로 추론한 연대는 서기전 2500년 전후이나 탄소연대는 서기전 3천년기 전엽(4410~4040 BP)으로 측정되었다.

〈발굴보고서〉 [유구 종류]

가경고고학연구소, 2012a,『태안 달전리 유적』. [주거지 1, 수혈 3]

가경고고학연구소, 2012b,『당진 동곡리 동곡・유곡리 벌후 유적』. [노지 2, 수혈 4]

가경고고학연구소, 2013a,『당진 율사리 유적』. [주거지 1]

가경고고학연구소, 2013b,『당진 동곡리 뱃말・유곡리 아랫말・유곡리 대창말 유적』. [주거지 2]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a,『홍천 성산리 유적』. [주거지 1]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b,『춘천 우두동 유적 II』. [주거지 1, 수혈 1]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c,『고성 대진리 유적』. [주거지 2]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화천 거례리 유적』. [주거지 1]

경남문화재연구원, 2012,『진주 평거동 유적』. [야외노지 2, 석축유구 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a,『의령 마쌍리・산남리유적』. [무덤. 노지, 집석 각 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b,『진주 평거 4-1지구 유적』. [주거지 8, 야외노지 14, 수혈 84, 적석유구 2, 구상유구 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3,『대구 유천동 신석기시대 생활유적』. [주거지 2, 야외노지 6]

고려문화재연구원, 2013,『김포 양촌 유적』. [주거지 6, 수혈 2]

국립김해박물관, 2012,『비봉리 II』. [주거지 1, 수혈 67, 패각수혈 4, 야외노지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고성 문암리 유적 II-발굴조사보고서-』. [주거지 7, 야외노지 12, 수혈 1, 경작유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고성 문암리 유적 II-분석보고서-』.

국립춘천박물관, 2013,『영월 공기2굴·꽃병굴 동굴유적』.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김천 지좌리유적』. [주거지 6, 토기요지 7, 야외노지 5, 수혈 16]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3,『순천 마륜리 마륜유적』. [주거지 1]

동서문물연구원, 2012,『진주 평거 4지구 II구역 유적』. [야외노지 2]

목포대학교박물관, 2012,『광양 오사리 돈탁패총』. [패총 1, 주거지 1]

삼강문화재연구원, 2012,『김천 지좌리 무문시대 집락』. [주거지 3, 소성유구]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울진 죽변리 유적』. [문화층, 수혈 2, 구상유구 1]

백제문화재연구원, 2013,『당진 가곡리 패총유적』. [패총 1]

복천박물관, 2012,『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시흥 오이도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13,『대구 서변동 취락유적 II』. [집석유구 4]

예맥문화재연구원, 2015,『삼척 증산동유적』. [주거지 3, 수혈 1, 야외노지 33]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a,『울산 처용리 21번지 유적』. [매장유구 16, 수혈 22]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b,『창녕 수다리 패총』. [패총 2]

울산문화재연구원, 2014,『부산 가동 패총』. [패총 2, 야외노지 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4,『익산 신용리 갓점 유적』. [주거지 1]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정읍 접지리, 마석리유적』. [적석노지 2]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부안 대항리 패총』.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a,『제주 회천동유적(1035-2번지)』. [수혈 9]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b,『제주 오동동유적(105번지)』. [수혈]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제주 이호동유적(1630-3번지)』. [수혈 34, 적석노지1]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제주 고산리 유적』. [주거지 27, 수혈 303, 야외노지 9]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안성 양변리유적』. [주거지 1]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화성 청원리·석교리 유적』. [주거지 26, 야외노지 1, 수혈 4]

중앙문화재연구원, 2012,『서산 왕정리유적』. [주거지1]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예산 효림리유적』. [주거지 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홍성 신경리 · 예산 목리유적』. [주거지 2]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a,『인천 운복동 유적』. [주거지 18, 야외노지 84, 수혈 16]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b,『인천 중산동 유적』. [주거지 31, 야외노지 27, 수혈 397]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c,『인천 경서동 유적』. [주거지 2]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a,『원주 반곡동 유적』. [주거지 3, 야외노지 6, 수혈 5]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b,『김포 운양동 유적 II』. [주거지 1]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a,『보령 송학리 패총 유적』. [패총 3]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b,『인천 구월동 유적』. [수혈 2, 야외노지4]
한국문물연구원, 2012,『울산 황성동 신석기시대 유적』. [수혈 1, 집석노지 6, 노지군 1개소]
한국문물연구원, 2014,『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집석유구 100, 수혈 155, 옹관 1]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4,『서울 외발산동 유적』. [수혈 2]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남양주 별내유적 III』. [주거지 3, 야외노지 4, 집석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여수 경도 신석기시대 패총』. [패총 4, 야외노지 4]

Ⅳ. 단행본, 도록, 박사학위논문

앞에서 한국신석기학회의 학술대회를 소개하였는데 학회의 가장 큰 공헌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고고학 사전작업에 참여하여『한국고고학전문사전(신석기시대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13)을 발간한 것이다. 이 사전은 신석기 전공자 50여 명이 집필에 참여하여 유적과 개념 표제어 약 1천여 건에 관한 용어해설을 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 유적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신석기학회는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11년도의『한국 신석기문화 개론』에 이어 2012년도에는『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2014년도에는『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을 중앙문화재연구원 편으로 발간되었다. 앞의 두 권은 2012년도, 2013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또한 자료집으로 기존에 발간된 주거지 집성에 이어 골각기도 집대성되었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최근에는 종실유체를 찾기 위한 토기 압흔 분석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보고서 두 권이 한국과 일본에서 발간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신석기시대 압흔 보고서는 문암리 유적

을 발굴한 조미순이 2013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주도한 〈식물고고학을 통한 선사시대 농경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암리, 오산리, 송전리, 지경리, 운서동에서 조, 기장, 들깨, 콩속 등의 압흔을 찾은 결과가 수록되어있다. 특히 중서부에서 가장 이른 취락 중의 하나인 운서동 유적에서 조, 기장, 들깨를 찾은 것이 언론에 홍보되기도 하였다. 中山誠二(2014)가 편집한 『日韓における穀物農耕の起源』은 밀양 살내 · 신안, 화성 석교리, 대부동, 송죽리, 지좌리, 봉계리의 즐문토기 압흔분석과 함께 청동기시대 압흔분석 결과도 포함하며 「박편석기와 굴지구 사용흔분석」(原田幹), 「한일 재배식물의 기원과 농경의 전개」(中山誠二) 등 관련 논문도 실려 있다.

한 점의 홍도를 완성하려면 하룻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 태토와 안료, 땔감 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공덕이 들어간다.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 12차례의 주말을 온전히 바쳐 61점의 홍도를 만든 결과가 단행본(임학종 2012)으로 발간되었다. 태토, 안료, 채색과 마연, 소성, 땔감까지 토기 제작 전체 과정에 대한 실험고고학적 분석이 이루어져 학술적 가치와 쓰임새가 탁월한 연구결과이기에 2012년도 동원학술대상을 수상하였다.

번역은 '단지 외국의 개념과 사상을 수용하는 지적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화적 실천'(신숙정 2011, p.57)이다. 한강문화재연구원 등 일부 기관에서 번역 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최근에도 두 권의 알찬 번역서가 간행되었다. 로버트 켈리의 "The Lifeways of Hunter-Gatherers The Foraging Spectrum"은 생계관련 모델, 이동성, 기술, 공유와 교환 그리고 영역성, 집단 크기와 인구학, 남성과 여성의 수렵채집, 불평등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필자가 나름 즐겨보던 원서였는데 『수렵채집사회-고고학과 인류학-』으로 번역되어 발간되었다. 계간고고학에 연재되던 하야시 켄사쿠의 조몬시대 연구사도 오래 전 필자의 가슴을 띠게 한 알찬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드디어 단행본으로 번역되었다. 두 권 모두 신석기 전공자들의 필독서로 추천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신숙정(1993), 이기길(1994), 이동주(1996), 송은숙(2002), 김석훈(2003), 임상택(2006), 하인수(2006), 구자진(2010)이 신석기시대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김성욱(2008)과 이상균(1995)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소상영(2013)과 윤정국(2015)이 신석기박사에 합류하였다.

소상영(2013)은 탄소연대를 이용하여 중서부 신석기시대를 I기(3600 BC 이전)와 II기(전반, 중 · 후반)로 편년하고 도구 다양성과 자연유체 출토 양상을 검토하여 시기별 취

락의 점유양상과 생계·주거 체계의 변동과정을 고찰하였다. I기에는 내륙 자연제방과 해안·도서 구릉에 대규모 취락이 출현한다. II기 전반에는 홍수와 기후 한랭화로 인해 내륙은 대규모 취락의 해체와 입지변화가, 해안도서는 인구집중과 해양자원 이용 강화가 나타난다. 2기 중반에는 조달 이동에서 거주 이동 중심으로 변화면서 정주성이 약화된다. 2기 후반에는 기후 한랭화로 거주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신석기 문화가 해체되나 해안은 배타적 점유권이 유지된다.

윤정국(2015)은 석기 제작방법과 체계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석기 수량과 다양도로 유적을 3군으로 구분하고, 석기 제작체계는 가공준비 상태에 따라 자갈돌몸돌, 판상, 격지 제작체계의 총 20가지를 확인하였다. 후기구석기와 신석기시대 초창기 석기 제작이 단절적이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점, 소재와 석기의 최종 형상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선택한다는 점, 판상소재를 조기부터 새롭게 수용한다는 점이 논문의 핵심이다.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한국고고학전문사전(신석기시대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식물 압흔분석보고서』.

복천박물관, 2013, 『한국 선사·고대의 옥문화 연구』.

「중국 동북지역 신석기시대 옥문화」(임승경)

「신석기시대 옥기의 기초적 검토」(하인수)

「繩文時代 後·晩期 九州의 石製裝身具와 韓半島」(大坪志子)

임학종, 2012, 『홍도의 성형과 소성 실험』, 대동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2,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서경문화사.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4,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진인진.

「즐문토기의 편년 연구와 과제-남부지역을 중심으로-」(하인수)

「신석기시대 토기 연구방법론」(다나카 소우이찌)

「신석기시대 토기의 기종과 조성」(구자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의 시문기법과 문양」(홍은경)

「신석기시대 토기의 제작과 가마」(배성혁)

「고산리식토기의 분류와 편년」(박근태)

「동해안지역 조기 토기 편년과 양식」(임상택)

「서북한지역의 토기편년」(이영덕)

「영선동식토기의 성립과 변천」(장은혜)
「금강식토기의 성립과 전개」(신종환)
「남부내륙지역의 중·후기 토기의 양상과 편년」(송현경)
「신석기 말기 토기의 양상과 전개」(이동주)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토기의 교류」(후루사와 요시히사)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한국 선사·고대의 골각기』, 서경문화사.
「선사시대의 뼈연모 제작기술」(최삼용)
「신석기시대 골각기」(하인수)
中山誠二(編), 2014, 『日韓における穀物農耕の起源』, 山梨縣立博物館.

〈번역본〉

로버트 켈리(성춘택 역), 2014, 『수렵채집사회-고고학과 인류학-』, 사회평론.
하야시 켄사쿠(천선행 역), 2015, 『일본 신석기시대 생업과 주거』, 사회평론.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15,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외, 2012, 『대구·경북 신석기문화 그 시작과 끝』.
복천박물관, 2013, 『선사·고대 옥의 세계』.
한성백제박물관, 2014, 『동북아 선사문화로의 초대』.
「선사시대 요서지역 무덤의 부장유물에 대한 이해」(이청규)
「중국 동북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임상택)
「중국에서의 정주취락과 농경출현」(안승모)

〈박사학위논문〉

소상영, 2013,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정국, 2015,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Ⅴ. 학술지 논문

1. 편년

전통적인 형식학적 방법을 이용한 편년 연구가 여전히 많이 발표되었다. 융기문토기(황철주 2012), 남부지역 조·전기토기(장은혜 2014), 이중구연토기(송현경 2012), 중서부 중·후기 토기(이혜원 2015)의 형식분류와 편년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죽변양식, 영선동 양식 내륙 유형 등 새로운 토기 양식과 유형도 설정되었다(임상택 2012, 2015; 하인수 2013). 발굴보고서에 많은 탄소연대 결과가 보고되면서 유적내, 지역별 상대편년과 지역간 병행관계에 탄소연대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소상영 2013; 안재호·이창희 2013). 단 탄소연대는 해양리저브, 고목효과 및 고고자료 형성과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안승모 2012). 또한 여전히 연대보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보정탄소연대와 보정탄소연대를 혼돈하여 인용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편년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신석기학회에서 학술대회 주제로 선정되고 단행본도 발간되었으나 세부 편년에서는 여전히 연구자간에 이견이 많다. 한편 아직 고지자기로 신석기유적의 연대를 추정하지는 못하지만 고지자기의 변동패턴을 이용하여 유구의 동시기성 확인이나 상대편년 연구에 이용될 수는 있다(성형미 2013).

2. 주거지, 취락과 거주 전략

유적 편에서 보았듯이 구제발굴의 활성화로 매년 많은 신석기 유적이 찾아진다. 그리하여 유적에서 보고된 주거지와 취락 자료를 이용한 많은 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소상영(2013)의 박사학위논문은 앞에서 소개하였고 개별 논문으로는 주거지 내부 공간활용(구자진 2013a), 대천리식 주거지 성립과정(구자진 2013b), 취락점유 양상(소상영 2013b), 중부 취락의 공간구조(이형원 2012),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유지인 2012)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고고학회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한 유지인은 취락 구조와 도구조성을 같이 분석하여 취락점유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중산동과 운복동으로 대표되는 중서부 도서의 후기 취락은 중기보다 정주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약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유지인(2012)은 상기 유적들을 동시기의 단일 취락으로 보고 주거지, 기둥 수리 흔적의 빈번, 도구와 유구의

다양성을 근거로 중기보다 후기에 정주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소상영(2013)은 1~4기의 작은 주거군과 생활면의 재사용을 취락 축소와 정주성 약화로 결부하면서 후기 취락은 계절적 또는 수년 단위의 주기적 이동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동물고고학자인 김은영(2014)도 주거지와 취락유형, 석기조성과 박편석기를 이용하여 중기 호서지역 수렵채집 집단의 이동-점유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석기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박편석기를 편의도구에 넣어 점유 시간 추정에 이용한 점도 흥미롭다. 취락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거지 등 유구의 동시기성에 대한 판단이다. 연구자마다 동시기성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주거군이나 주거 배치의 선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3. 생업과 환경

1) 농경

최근 생업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가 농경이다. 많은 유적에서 식물 유체 분석과 토기 압흔 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후자의 성과가 두드러져 압흔 연구를 종합한 단행본이 한국과 일본에서 발간되었고(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中山誠二 2014), 개별 논문도 발표되었다(조미순 외 2014). 우리나라 압흔분석을 가장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오바타는 동삼동 패총 조기와 전기 토기에서 보고된 조, 기장 동정 기준에 대한 필자[5]의 의문 제기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다(小畑弘己 2013). 그는 한반도 남부의 잡곡이 현지 자생이 아니라 중국 북부로부터 문화적 연쇄 안에서 파급된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또한 그가 진행한 신석기시대 압흔분석 결과를 일본에서도 발표하였다(小畑弘己·眞邊彩 2014). 식물고고학자인 이경아는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콩과 팥의 이용과 재배가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경아 외 2012; 이경아 2014; Lee et al. 2013). 한편 조은하(2014)는 영동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되는 중기에 오히려 수렵채집 관련 석기가 증가하여 수렵채집경제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석기 조성으로 생업 변화를 추론하는 논문들이 많으나 양자의 직접적 관계는 모호한 편이다.

신석기시대에 벼농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중의 하나가 대천리 출토 탄화미였다. 필자는 대천리에서 조, 쌀과 같이 보고된 보리와 밀의 존재에서 대천리 출토 작물종자의

5) 안승모, 2012, 「동아시아 조·기장 기원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중앙문화재연구원 편, 서경문화사).

신뢰성을 의심하였다. 근동기원 작물인 맥류가 중국에 전래되는 시기는 서기전 3천년기 후반인데 중국보다 수백 년 먼저 한반도에 맥류가 출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탄화미 역시 신석기시대 유일한 자료라서 의문이 있었기에 끊임없이 발굴책임자에게 탄소연대측정을 재촉하였다. 드디어 대천리 탄화곡물의 탄소연대 측정결과가 보고되었다(한창균 외 2014). 탄화미는 네 건 모두 원삼국시대 연대(1770±60, 1780±60, 1800±60, 2070±60 BP)가 나와 후대교란을 의심한 필자의 추측과 부합하였다. 보고자는 곡물의 탄화과정에서 완벽한 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료상의 문제로 인한 연대측정값의 차이는 없는지 의문하였으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의 원리상 탄화의 정도로 연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필자의 예상을 뒤집은 것은 주거지 연대와 부합하는 맥류의 탄소연대(4380±60, 4590±80 BP)이다. 후자의 탄소연대를 보정하면 중심연대가 서기전 4천년기 말로 중국에서의 맥류 출현 연대보다 수백 년 앞서게 된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탄소연대 측정 시료로 제출한 탄화종자를 보리와 밀로 동정한 것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동정이 정확하다면 맥류가 황하유역의 중국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거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다. 현재까지 시베리아에서 서기전 4・3천년기의 맥류가 보고된 예가 없기에 시베리아의 식물고고학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후대오염으로 판단하였던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밀의 탄화종자를 대상으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해볼 필요도 있다.[6)]

2) 어로와 패류 채취

중서부의 해안・도서 취락은 바닷가라는 입지조건과 달리 어로구가 극히 드물다. 소상영(2012)은 어로구가 불필요한 어량이나 독살로 어류를 집중적으로 포획하였고 어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정주성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영덕(2013)은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독살 사용에는 회의적이며 중서부 해안 어로는 남해안 전기와 후기 토기문화의 일군이 해안을 따라 북상한 결과로 조차를 이용한 고정식 그물을 이용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연변부지수와 산소동위원소를 이용한 패류의 계절성 연구도 꾸준히 보고된다(류동기・안덕임 2013; 안덕임・류동기 2013; 안덕임・이인성 2014・2015). 상기 분석에 따르면 대죽리 말백합과 연대도 굴은 봄에, 가곡리 굴은 가을에 채취하였다.

---

6) 맥류의 한반도 전파 문제는 고고학지 이번 호에 실린 이경아 논문도 참조할 것

3) 동물상과 반구대암각화

수렵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내륙 동물상에 대한 논문이 두 편 발표되었다. 이충민(2014)은 동굴과 바위그늘에서 보고된 대형 포유동물 유체를 집성하였고, 조태섭(2014)은 영월 공기2굴의 신석기시대 동물상과 자연환경을 보고하였다. 동물 유체 분석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공기2굴, 피난굴, 상시3바위그늘, 문암리 경작층, 비봉리 패총 등에서 보고된 소(*Bos taurus* L.)이다. 구대륙에서 소는 근동, 유럽과 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중국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청동기시대가 되어야 들어온다. 물소라면 몰라도 가축으로서의 소가 우리 신석기시대에 존재하기는 어려워 동정 오류나 후대 혼입일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한다. 고래 뼈가 발견된 황성동 유적에서 언급하였듯이 반구대 암각화는 이제 청동기시대보다 신석기시대 소산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강봉원 2012; 하인수 2012).

4) 해수면 변동과 고환경

앞에서 소개한 중산동, 문암리, 황성동 유적뿐 아니라 많은 발굴보고서에 퇴적물이나 화분 분석 등을 이용한 고환경 또는 고지형 분석 결과가 실려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신석기시대 환경 복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해수면 변동은 고고학적 유구나 문화층 등과 결부된 자연과학적 분석이 다소 안정된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동주(2013)는 울산 세죽 유적 일대에서 확인된 해수면 변동 증거를 이용하여 고고학적 해석을 덧붙였다. 서기전 4500년과 4000년 무렵의 해수면 1차, 2차 상승으로 융기문토기문화가 쇠퇴와 소멸을 거치면서 압인문토기문화로 전환되었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서해안에서 조기 유적은 해수면 상승기 이전이라 해저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인골 동위원소분석

장항유적 출토 인골의 동위원소분석은 앞서 발굴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 인골의 동위원소분석은 기존에도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는데 안도 패총도 그렇다(Choy et al. 2012). 장항, 안도, 동삼동, 대포 등 남해안 조~중기 신석기 인골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신석기인의 주 단백질원은 바다에서 확보되었다. 동굴 등 내륙에서도 인골이 발견되길 기다려본다.

4. 기술

석기 제작 연구는 윤정국(2015)의 박사논문 소개에서 언급하였다. 김경진(김경진 2012; 김영준 외 2015)은 사용흔 관찰, 사용 실험과 민족지 자료에 기초하여 석기 기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찔개살도 어획 실험 및 민족지 자료를 검토하여 사냥도구보다 2차 수습도구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최경용・문수균 2013). 토기 제작 과정의 실험적 연구는 임학종(2012)의 단행본과 소상영(2013c)의 논문이 있으나 다소 침체한 편이다. 골각기 제작기술은 골각기 자료집(한강문화재연구원 2014)에 실려 있다.

5. 교역과 교환

처용리와 고산리에서 결상이식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기원에 대한 논쟁이 재개되고 있다. 임승경(2012)은 처용리 결상이식의 출자를 양자강유역에서 찾고 있으나 하인수는『한국 선사・고대의 옥문화 연구』(복천박물관 2013)에 실린 논문에서 임승경의 설을 비판하면서 제작기법, 재료의 현지성, 가공 상태 등으로 미루어 중국 동북지역에서 결상이식 문화가 수용된 후 자체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 자체에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결상이식의 유입배경으로 흥륭와문화 잡곡농경의 한반도 유입을 제기하였다.

여서도 패총에서 출토된 현무암제 첨가 토기는 제주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자연과학적 분석에서 여서도와 안도 출토 토기에 혼입된 현무암은 남해안산으로 밝혀졌다(조대연 2014). 조대연(2013)은 중서부 활석혼입토기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유병일(2012), 이상균(2012), 조미순 외(2013)도 교역과 석기 산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6. 매장과 의례

고고학의 선진국인 구미권에서는 탈과정주의와 인지과정주의의 흐름에서 상징, 의례 등을 포함한 인지고고학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연구가 극히 부진하다. 장항 유적 매장유구에 대한 논문(김상현 2014)이 유일한데 발굴보고서의 고찰을 보완한 것이다.

7. 설명과 방법론

인지, 젠더와 더불어 우리에게 크게 부족한 분야가 문화변동 등을 설명하기 위한 이

론과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변동은 여전히 전파론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송은숙(2012)은 굴 주요 생계자원인 보이스만 계통 집단이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견과류+어로의 융기문토기인에게 영향을 주어 후자가 어로+굴 채취 생업을 선택하면서 해안과 바다에 적응한 영선동식토기문화가 성립되었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이스만 계통 집단의 남해안 유입을 증명할 고고학적 증거는 여전히 빈약하다. 중서부 첨저 기형의 성립을 동아시아 전체의 광역적 공통성과 국지적 개성의 공존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임상택 2014). 이 글에서 이용한 광역정보교환망과 상호작용권 모델은 초창기의 고산리식토기문화, 조기의 융기문토기 등 평저토기문화, 전기의 영선동식토기문화의 성립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택(2012)은 조기 평저토기를 오산리하층양식, 죽변양식, 동삼동하층 양식으로 구분하고 개개의 양식은 서로 다른 집단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선동 양식 내륙 유형의 성립 과정을 복제 오류에서 찾았다(임상택 2015).

8. 주변 지역 비교연구

기존에는 남부 신석기문화와 조몬문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지역의 평저토기문화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김재윤 2012, 2013, 2014, 2015; 김은영 2014). 남해안 조·전기 생업을 양자강 하류역의 동시기 생업과 비교한 논문도 발표되었다(안승모 2014b).

Ⅵ. 취락 변동과 탄소연대

누적된 탄소연대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적, 지역적 차원에서 취락과 인구의 장기적 변동을 파악하는 연구가 세계적 추세이다. 소상영(2013)의 박사학위논문도 이러한 흐름에 관련되며 우리 연구자들도 최근 관련 논문들을 잇달아 국제 저널에 발표하고 있다(Ahn and Hwang 2015; Ahn et al. 2015; Bae et al. 2013; Kim et al. 2015). 여기서는 탄소연대를 이용하여 정주취락의 증감 현상을 분석한 필자의 논문(Ahn et al. 2015)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 성과를 외국에 소개한 신숙정(Shin et al 2012)은 신석기시대

잡곡 재배의 출현에서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로의 전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점진적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 신석기 후기로 갈수록 사회적 복합성이 증가하면서 집단 노동력을 조직할 수 있는 일부 유력 집단이 관개 도작을 채용하였다는 견해이다. Bae et al(2013)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농경사회로의 점진적 전이 주장이 성립되려면 신석기 작물재배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정주성과 사회적 복합도가 증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거지와 주거지를 동반한 취락의 시간적 변천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주거지 편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상대편년에 의한 주거지와 취락 수의 시기별 변천, 탄소연대가 측정된 주거지의 시기별 변천을 동시에 검토하여 말기까지도 정주취락과 저차원 자원생산 경제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정주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나 필자는 편의상 주거지와 주거지를 동반한 취락을 정주 취락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주거지가 대부분 수혈주거지인데 땅을 파고 바닥을 정지하고 기둥과 노지를 만드는 작업은 정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계절적으로 반복 점유하기 위하여 수혈주거를 축조할 수도 있으나 같은 조건에서 시기별 변천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1. 시기별 주거지와 취락 수 변동

주거지와 취락의 시기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표 4), 전기에 경기 도서와 한강 중하류역에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며, 중기에는 경기 해안과 충청에서 주거지와 취락이 급증하고 동해안과 남부까지 지역적으로 가장 확대된 분포를 보인다. 후기에는 영종도에는 주거지가 산촌 형태로 여전히 밀집 분포하며 중기보다 주거지가 증가하지만 경기 해안과 충청지역 취락의 소멸로 중기보다 전체 주거지와 취락 수는 크게 감소한다. 남한 전체로 주거지, 취락 수를 비교하면 후기에 취락은 1/3, 주거지는 1/2로 급감한다. 말기에는 전 지역에서 정주취락이 거의 소멸되나 패총, 야외노지 등의 야외유구는 후기보다 증가한다.

표 1. 지역별, 시기별 주거지/취락 수(Ahn et al. 2015)

시기	경기 도서	경기 해안	충남	경기 내륙	영서	영동	중부 전체	남부	전체
전기	68/2			36/2	3/1		107/4	6/3	113/7
중기	42/5	77/4	59/29	10/2	2/2	30/7	220/69	39/8	259/77
후기	57/3			21/8	8/4	8/2	94/17	45/8	139/25
말기	6/3				3/3		9/6	3/2	12/8

2. 탄소연대의 시간적 분포

고고학 발굴에서 탄소연대 측정이 보편화되면서 수많은 탄소연대 자료가 누적되고 있다. 탄소연대의 선정 기준은 소상영 박사학위논문(2013, pp.46-50)에 제시된 절차를 준용하였다. 단 동일 유구에서 여러 탄소연대가 보고되었을 때는 가장 늦은 연대를 선택하였다. 아래 그림은 지역별 주거지 탄소연대를 통합하여 100년 단위의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한 것이다(도 1). 5000 BP 이전은 남부의 전기 주거지 1기(동삼동)를 제외하면 모두 농경과 무관한 동해안 조기 주거지이다. 5000-4800 BP는 경기 해안과 한강 중하류 주거지에 한정된 연대이다. 이곳에 취락이 등장한 이후 4800-4700 BP에 주거지가 급증하여 4700-4500 BP에 피크를 이룬다. 이후 서서히 감소세로 들어서다 호서와 영동에 주거지가 소멸되는 4200 BP부터 크게 감소하고 다시 4000 BP 이후 급감하여 중부에서만 명맥을 유지한다. 반면 야외노지, 패총, 수혈을 포함한 야외유구는 주거지 증감과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며 주거지 연대가 드문 4000-3300 BP 사이에 높은 수치를 보인다(도 2). 결론적으로 정주취락이 출현하면서 수백 년 동안은 주거지가, 그리고 아마도 인구도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말기에는 주거지, 즉 정주취락은 거의 소멸되거나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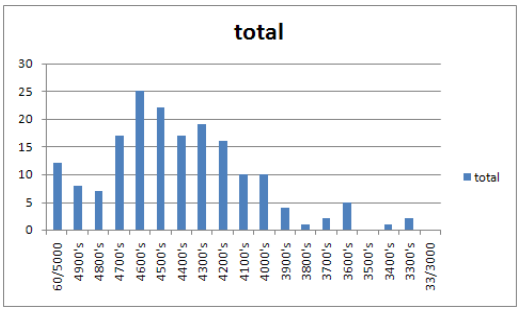

그림 1. 미보정 연대(BP)를 이용한 수혈주거지 수량 변동(Ahn et 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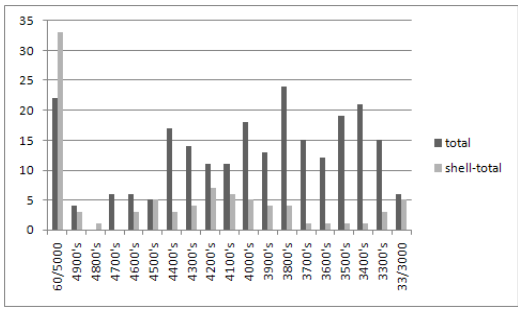

그림 2. 미보정 연대(BP)를 이용한 야외유구 수량 변동(Ahn et al. 2015)

주거지 한기당 하나의 연대로 통합. 기존 편년과 큰 오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 탄소연대에서 가장 어린 연대를 선택함. 단일 주거지가 증축, 반복점유로 장기 점유되었을 때는 별도 집계함

패각은 해양리저브 효과 때문에 따로 집계. 패총 연대는 층위 별로 통합하거나 점유 기간이 길 경우는 100 BP마다 1건씩 집계하였음

아래 그림(도 3, 4)은 보정연대를 이용한 통합확률 분포(summed probability distribution)로 시기별 변이 양상을 보여준다. 앞에서는 개별 유구에서 복수 연대가 나왔을 경우 가장 늦은 연대만을 이용하였는데 여기서는 Oxcal R_Combine 명령어를 이용하여 통합한 연대를 산출하였다[7]. 패각 시료는 서남 해안에서 측정된 Reservoir age 172±4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소상영 2013:46-47). 주거지 분포(도 3)는 3800 BC 무렵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3500 BC에 피크에 도달한 후 3400 BC까지 다시 감소하여 3000 BC 무렵까지 정체한다. 2900 BC의 일시적 피크는 보정곡선의 평탄한 면에서 나타나는 왜곡 효과이다. 2900 BC와 2500 BC 이후 가파르게 급감하는데 양자는 후기와 말기 시작의 연대이다. 중서부에 한정하였을 때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도 5). 야외유구(도 4)는 3400 BC부터 증가하여 1500 BC까지 높은 분포를 보인다. 즉 후기와 말기에는 주거지와 야외유구 증감은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중산동 등 대부분의 유적에서 주거지 폐기 이후 야외유구가 조성되는 양상과도 연결된다. 주거지, 야외유구 모두 1500 BC 이후 급격히 사라졌다.

7) 가장 늦은 연대를 이용하거나 통합 연대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통합확률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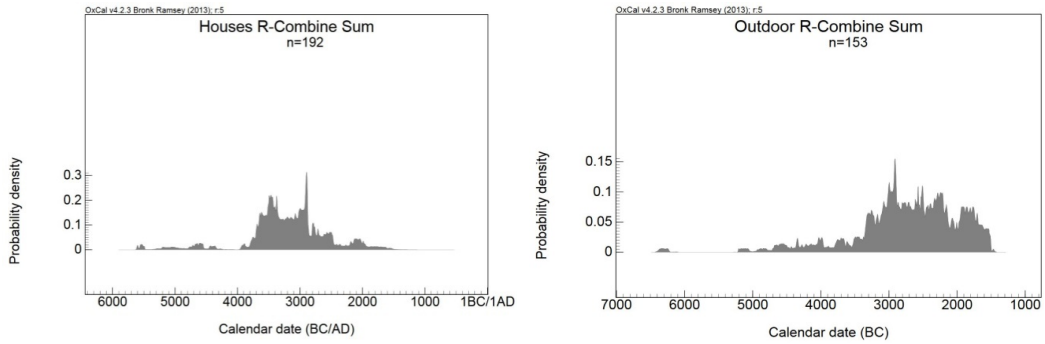

그림 3, 4. 주거지와 야외유구의 통합확률분포(summed probability distribution)(Ahn et 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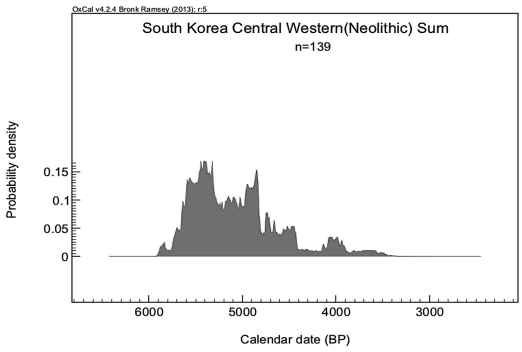

그림 5. 중서부 주거지의 통합확률분포(Ahn and Hwang 2015, Fig. 4)

결론적으로 전체 주거지와 취락 수의 분석, 주거지 탄소연대 분포 분석 모두 거의 동일한 변화를 나타낸다. 정주와 잡곡재배가 시작되면서 서기전 4천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정주취락이 서기전 3천년기 후반부터는 해체되거나 소멸되었다. 반면 동시에 야외유구 증가 현상에서 이동성 강한 수렵채집생활로 복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농경은 정주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주성의 감소는 농경의 후퇴와 연결된다. 물론 말기에 작물재배나 취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청동기시대 농업이 신석기시대의 점진적이고 누진적인 농경의존도 심화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농경사회로의 점진적 진화 가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상황은 신석기 수렵채집사회에서 청동기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단선진화이거나 불가역적 현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필자는 잡곡재배 채용과 마찬가지로 취락 증감도 기후변화를 주된 동인으로 생각한다(Ahn & Hwang 2015). 서기전 3천년기 후반기는 전 지구에 걸쳐 건조화와 한랭화가

급속히 진행된 시기이다. 조, 기장이 건조에 강하다고는 하나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건조와 한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잡곡 재배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정주취락이 해체되고 다시 어로의 중요성이 증대하거나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 생활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후 한랭화와 건조화는 견과류 생산 감소와 사냥감 감소로 이어지기에 식량 확보를 위해 자원영역의 확대나 이동 전략의 강화로 연결된다.

앞에서 장항 유적 등 전기유적에서의 옥제품 등 위신재 부장양상에서 사회적 분화나 계층화가 추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분화나 계층화가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한 논증이 김민구(Kim et al. 2015)의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김민구도 취락 87곳, 패총 49곳의 탄소연대를 이용하여 취락유형의 시간적 변이를 추적하여 필자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서기전 3천년기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분화나 불평등이 제도화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Ⅶ. 맺음말

신석기시대 연구의 과제는 이미 신숙정(2011, 2013, 2015)의 글에 발표되어 추가할 내용은 거의 없다. 탄소연대를 중심으로 한 편년의 재편, 취락 변동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실증적이고 지역적 연구, 매장의 고고학에서 죽음의 고고학으로의 관점 전환, 생업변화와 교환의 원인이나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해석과 설명의 고고학, 학제간 교류의 활성화 등 그가 제기한 과제에 필자 역시 적극 동조한다. 그는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의 전환 등 전환기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출현기 토기는 석회암 동굴과 패총 유적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육지에서는 초창기에 첨두기, 석촉 등 타제석기만 일부 유적에서 출토될 뿐 왜 토기는 발견되지 않는가는 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신석기말기 이중구연토기와 청동기시대 이중구연토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통일된 견해는 없다.

필자는 새로운 문화(또는 문화요소)의 출현이나 문화변동에 대한 해석에서 일종의 패러다임적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연대의 누적과 층위적 발굴로 기존의 형식학적 편년이 많이 붕괴되었으며 재배식물의 출현 시점도 계속 바뀌고 있다. 아직까지 남부에서 새로운 문화나 문화요소의 출현에 대해 항상 원류를 북쪽에서 찾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즐문토기의 시베리아 기원설이 수십 년 전에 붕괴된 상황에서도 그러하다.

필자는 중서부의 전형적 즐문토기의 출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생각하고 있다. 고 김원용은 이미 아가리무늬의 평저토기에 어골문이 첨가하여 삼부위토기가 출현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동주도 전기 토기의 북상으로 중서부토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수많은 반박에 직면하였지만 필자 역시 중서부 즐문토기의 출현은 남부의 영선동식토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요하유역과 요동반도를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는 평저토기라 중서부의 첨저토기와는 기형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중서부의 초창기, 조기 토기가 내륙에는 전혀 없고 바다에만 잠겨있다고 상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반면 남부는 평저에서 원저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당연히 중서부의 첨저는 북쪽의 평저보다는 원저와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필자는 기후최적기에 온난화로 난류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게 되면서 영선동식토기를 사용하던 어로민이 서해안을 따라 중서부해안까지 진출하였고 기후최적기가 끝나는 서기전 4천년 무렵부터 난류성 어종이 퇴각하면서 일부는 남쪽으로 후퇴하고 일부는 생업 전략을 바꾸어 내륙자원을 이용하는 정착생활을 선택하면서 집단마다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전형적 즐문토기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제시해본다. 영선동식토기의 아가리무늬에 횡주어골문, 점열문, 단사선문이 존재하기에 전형적 즐문토기의 문양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임상택의 광역정보교환망과 상호작용권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소 엉뚱한 가설일 수도 있으나 일단 가설을 세워보고 거기에 적합한 검증방법과 모델을 찾아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극복해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융기문토기의 기원에서도 왜 우리는 굳이 일본과의 연결은 부정하려고 하는가? 왜 고산리식토기문화와 중동부 오산리식토기문화의 기원을 멀리 연해주와 아무르 유역에서 찾아야 할까? 정말 대동강유역 즐문토기가 한강유역보다 선행할까? 항상 북에서 남으로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변동의 원인을 찾아봐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4년도 안된 기간을 다룬 이 글에서도 신석기 관련 연구업적이 많이 누락되었을 것이다. 발굴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고고학 연구가 발표되는 학술지도 계속 많아지는 현실에서 개별 연구자가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고고학 자료를 공유하고 쉽게 검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화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강봉원, 2012, 「반구대 암각화에 표출된 육지동물의 재인식-동물사육 문제와 편년의 재검토-」, 『한국신석기학보』 23.

구자진, 2012, 「대전 둔산 신석기유적의 재검토」, 『한국신석기학보』 24.

구자진, 2013a,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의 운용방식 연구」, 『한국신석기학보』 26.

구자진, 2013b, 「신석기시대 토기의 기종분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야외고고학』 16.

구자진, 2013c, 「신석기시대 대천리식 집자리의 성립과정에 대한 소고」, 『야외고고학』 18.

김건수, 2012a, 「섬진강유역의 신석기문화」, 『호남고고학보』 42.

김건수, 2012b, 「소복기도 출토 즐문토기 고찰」, 『한국신석기학보』 24.

김건수, 2014, 「민족지고고학의 적용과 한계」, 『한국신석기학보』 27.

김경진 · 김소영, 2012, 「신석기시대 망치형석기의 기능 연구-인천 운서동 신석기유적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1.

김상현, 2014, 「가덕도 장항유적 신석기시대 매장유구 연구」, 『문물』 4.

김성욱, 2012, 「신석기시대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제37회전국고고학대회.

김성욱, 2014, 「익산 신용리 갓점유적의 신석기시대주거지에 대한 소고」, 『마한 · 백제문화』 24.

김영준 · 김경진 · 이한주, 2015, 「보령 송학리 조개더미 출토 뗀석기의 기술-기능적 연구」, 『한국신석기학보』 29.

김은영, 2012, 「신석기시대 동삼동 지역의 생계 전략 변동에 대하여」, 『한국신석기학보』 23.

김은영, 2014, 「신석기시대 중기 호서지역 수렵채집 집단의 이동양상 연구: 주거지와 석기조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한국상고사학보』 85.

김은영, 2014, 「신석기시대의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부산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김재선, 2015, 「인천 운서동유적 주거와 취락구조의 변화」, 『한강고고』 11.

김재윤, 2012a, 「신석기 후기 동북한문화권의 시간과 공간범위」, 『한국상고사학보』 77.

김재윤, 2012b, 「목단강 유역의 앵가령 하층문화에 대한 검토」, 『영남고고학』 62.

김재윤, 2013a, 「평저토기문화권의 신석기후기 이중구연토기 지역성과 병행관계」, 『한국고고학보』 88.

김재윤, 2013b, 「환동해문화권의 전기신석기시대 교차편년 연구: 한반도 동해안~연해주~아무르강 하류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34.

김재윤, 2014, 「한-중-러 접경지역 신석기 고고문화의 변천」, 『고고광장』 14.

김재윤, 2015a, 「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의 6500-6000년 전 신석기문화 비교고찰」, 『한국고고학보』 96.

김재윤, 2015b, 「평저토기문화권 신석기후기 서부지역의 뇌문토기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89.
김종일, 2013, 「유럽 중기 신석기시대 사회구조의 변화」, 『고고학』 12-1.
류동기 · 안덕임, 2013, 「서산 대죽리 패총에서 출토된 말백합 *Meretrix petechialis* (Lamarck)의 성장 연구」, 『한국패류학회지』 29(2).
박성근, 2013,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석부 연구」, 『한국고고학보』 86.
박지훈 · 박윤정 · 조미순, 2014, 「화분분석으로 본 고성 문암리 유적의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 식생변천 및 농경활동」, 『한국신석기학보』 27.
배성혁, 2013, 「신석기시대 후기 토기요 연구-김천 지좌리 토기요지를 중심으로-」, 『한국신석기학보』 25.
성형미, 2013,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고고지자기 변동: 중서부지역 유적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9(3).
소상영, 2012, 「신석기시대 중서부해안 및 도서지역 어로문화연구」, 『한국신석기학보』 23.
소상영, 2013a, 「14C연대 분석을 통한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편년 연구」, 『한국고고학보』 89.
소상영, 2013b,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시대 취락의 점유 양상」, 『고고학』 12-3.
소상영, 2013c, 「신석기시대 토기제작과정의 실험적 연구 II-흑반과 토기 단면색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강고고』 8.
소상영, 2015, 「시도패총의 재검토」,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진인진).
小畑弘己, 2013, 「동삼동패총 · 비봉리유적 출토 기장 · 조 압흔의 동정과 그 기준」, 『한국신석기학보』 25.
小畑弘己 · 眞邊彩, 2014, 「韓國櫛文土器文化の土器壓痕と初期農耕」,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87,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송은숙, 2012, 「영선동식토기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 『한국신석기학보』 24.
송현경, 2012, 「신석기시대 남부지역 후 · 말기 이중구연토기의 전개과정」, 『한국신석기학보』 23.
신숙정, 2013a, 「신석기개념과 토기의 발생에 관한 최근의 논의」, 『한국신석기학보』 26.
신숙정, 2013b, 「최근 발굴된 신석기유적의 성과」, 『한국고고학저널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숙정, 2015, 「한국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 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토론문」, 『한국의 고고학사 I』, 한국상고사학회 제43회 학술대회.
신지영 외, 2013, 「부산 가덕도 장항 유적 출토 인골의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의 식생활 양상」, 『분석과학』 26(6).
안덕임 · 류동기, 2013, 「서산 대죽리 패총 출토 말백합 *Meretrix petechialis* (Lamarck)을 이용한 패류 채집의 계절성 연구」, 『한국패류학회지』 29.
안덕임 · 이인성, 2014,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당진 가곡리 패총 굴(*Crassostrea gigas*)의 채집 계절 연구」, 『한국패류학회지』 30(1).
안덕임 · 이인성, 2015,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신석기시대 연대도 패총 굴(*Crassostrea*

gigas) 채집 계절성 연구」, 『한국패류학회지』 31(1).
안승모, 2012, 「종자와 방사성탄소연대」, 『한국고고학보』 83.
안승모, 2014a, 「호남의 신석기문화-지난 20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호남고고학회 20년 그 회고와 전망』, 호남고고학회.
안승모, 2014b, 「서기전 6-5천년기 한반도 남해안과 양쯔강 하류역의 생업 비교」, 『한국신석기학보』 27.
안승모, 2014c, 「한국 선사고고학의 방법론적 전망」,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안재호 · 이창희, 2013, 「울산 세죽유적의 상대편년과 탄소14연대」, 『고고광장』 13.
양성혁 · 박승원, 2014, 「동삼동패총 출토 그물무늬 토기 고찰」, 『고고학지』 20.
유병일, 2012,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교류 관련 동물유체(조가비)」, 『영남고고학보』 61.
유지인, 2012, 「신석기시대 중 · 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한국고고학보』 85.
유태용, 2012, 「안성 월정리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연구」, 『백산학보』 93.
이경아 · 윤호필 · 고민정, 2012, 「선사시대 팥의 이용 및 작물화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75.
이경아, 2014, 「한반도 신석기시대 식물자원 운용과 두류의 작물화 검토」, 『중앙고고연구』 15.
이동주, 2012, 「동아대박물관 소장 영선동패총 출토 유물의 검토」, 『문물연구』 22.
이동주, 2013, 「울산 세죽유적 일대에서 확인되는 해수면 상승흔적과 그 성격에 대하여」, 『한국신석기학보』 26.
이상규, 2013, 「신석기시대 골제자돌구의 제작과 용도」, 『영남고고학』 65.
이상규, 2014, 「신석기시대 한반도 해안지역 작살에 관한 검토」, 『한국신석기학보』 27.
이상균, 2012, 「여수 안도패총 출토유물의 대외교류 양상」, 『전북사학』 41.
이영덕, 2013, 「중서부 해안지역의 어로 양상과 동인」, 『한국신석기학보』 25.
이영덕, 2015, 「신석기시대 연구사-도구와 생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고학사 I』, 한국상고사학회 제43회 학술대회.
이은 · 김건수, 2015, 「호남지방 신석기시대 생업활동에 대한 연구-패총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49.
이충민, 2013,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동굴 · 바위그늘유적의 성격-대형 포유동물화석을 중심으로-」, 『한강고고』 9.
이형원, 2012, 「중부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 구조와 그 의미」, 『고고학』 11-2.
이혜원, 2015,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중 · 후기 토기의 변화양상」, 『한국신석기학보』 29.
이희진, 2014, 「지질고고학적 연구에 기초한 농경 초현기 경작 방식의 검토-중국과 근동 및 중 ·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학보』 28.
임상택, 2012, 「동 ·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양식-죽변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

신석기학보』 24.
임상택, 2014,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의 비교」, 『백산학보』 100.
임상택, 2015, 「남부 내륙 지역 신석기시대 전기 토기 검토-영선동 양식 내륙 유형의 설정과 의미-」, 『한국신석기학보』 29.
임승경, 2012, 「한반도 출토 결상이식 소고」, 『문화재』 45(4).
임학종, 2015, 「소형토제품의 제작과 소성 실험」,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진인진).
장은혜, 2014,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조·전기토기 전환과정 연구」, 『한국신석기학보』 28.
田中聰一, 2013, 「韓半島中東部地域鰲山里式土器に關するいくつかの問題」, 『동아시아의 문물』 2(중헌 심봉근선생 고희기념논선집간행위원회).
정우진, 2013, 「중서부지역 단사선문양에 대한 연구」, 『마한·백제문화』 22.
조대연, 2013,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 활석혼입토기에 관한 일 고찰-시공간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43.
조대연, 2014, 「신석기시대 제주도 토기의 남해안지역 유통 양상에 대한 연구-자연과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3.
조미순·박윤정·좌용주, 2013, 「고성 문암리유적 출토 석기의 원산지 추정」, 『한국신석기학보』 26.
조미순·조은하·신이슬·서민석·小畑弘己·이경아, 2014, 「토기 압흔법을 활용한 중부 동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식물자원 이용 연구-고성 문암리유적, 양양 오산리·송전리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학보』 28.
조은하, 2014, 「강원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농경수용과 생계양상의 변화」, 『호서고고학』 31.
조태섭, 2014,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방 신석기시대 동물상과 자연환경」, 『백산학보』 100.
진미은·문성우·류춘길·좌용주, 2014, 「백두산 흑요석과 가덕도 흑요석제 석기에 포함된 미세결정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한국광물학회지』 27(2).
최경용·문수균, 2013, 「신석기시대 찔개살 제작 및 사용 실험 연구」, 『중앙고고연구』 13.
최종혁, 2013, 「신석기시대 남부내륙지역 취락 연구」, 『남강유역 선사·고대 문화의 보고 평거동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대회.
하인수, 2012, 「반구대 암각화의 조성시기론-동삼동패총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신석기학보』 23.
하인수, 2013, 「남부지역 즐문토기의 양식과 형식 문제」, 『한국신석기학보』 25.
하인수, 2015, 「문암리유적의 즐문토기 분류와 편년 검토」, 『한국고고학보』 95.
한창균·구자진·김근완, 2014, 「대천리 신석기유적 탄화곡물의 연대와 그 의미」, 『한국신석기학보』 28.
황상일·김정윤·윤순옥, 2013, 「창녕 비봉리 지역의 Holocene 중기 해수면변동」, 『대한지리학회지』 48(6).
황철주, 2012, 「한반도 동·남해안지역 융기문토기 편년에 대한 검토」, 『한국신석기학보』 24.
Ahn, Sung-Mo, Kim, J., Hwang, J. 2015a. Sedentism, settlements and radiocarbon

dates of Neolithic Korea. *Asian Perspective* 54(1):111-143.

Ahn, Sung-Mo and Hwang, Jae Hoon. 2015b. Temporal fluctuation of human occupation during the 7th-3rd millennium cal BP in the central-western Korean Peninsula. *Quaternary International* 384: 28-36.

Bae, Kidong, Bae, C.J., Kim, J.C. 2013. Reconstructing human subsistence strategies during the Korean Neolithic: contributions from zooarchaeology, geosciences, and radiocarbon dating. *Radiocarbon* 55: 1350-1357.

Choy, Kyungcheol, An, D., Richards, M.P. 2012. Stable isotopic analysis of human and faunal remains from the Incipient Chulmun (Neolithic) shell midden site of Ando Island, Kore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9(7): 2091-2097.

Kim, Jangsuk. 2014. From labour control to surplus appropriation: Landscape changes in the Neolithization of southwestern Kore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27: 263-275.

Kim, Minkoo etc. 2014. Population and social aggregation in the Neolithic Chulmun villages of Kore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40: 160-182.

Lee, Gyoung-Ah. 2013. Archaeological perspectives on the origin of azuki (*Vigna angularis*). *The Holocene* 23(3): 453-459.

Shin, Sook-Chung, Rhee, S.-N., Aikens, C.M. 2012. Chulmun Neolithic intensification, complexity, and emerging agriculture in Korea. *Asian Perspective* 51(1): 68-109.

【Abstract】

Recent Progress and Prospective Problems in Korean Neolithic Studies

Ahn Sung Mo

This paper tries to summarize recent progress in Korean Neolithic studies by consulting symposium by Korean Neolithic Societies, excavation reports, academic books and articles. More than fifty excavation reports has been published since 2012, among them most important seven sites are introduced in the paper including the Gosan-ri site in Jeju with the earliest pottery and settlements during the 8th millennium BC, the Jukbyun site in Uljin, the Cheoyong-ri site in Ulsan, the Janghang site in Busan, all with ritual or burial features during the 6th and 5th millennium BC, the Hwangsung-dong site in Ulsan with whale remains embedded with bone points which could be results of whale hunting during the 5th millennium BC, the Munam-ri site in Goseong with arable fields during the late 4th millennium BC, the Jungsan-dong site in Incheon with scattered settlements in islands during the 3rd millennium BC, the Jijwa-ri site in Gimcheon with new type of tunnel kiln during the 3rd millennium BC. Paleoenvironmental analysis including paleo-topography reconstruction, plant and animal remains analysis has been practiced in most sites mentioned above. Articles in archaeology journals mainly deal with the traditional topics such as chronology, typology, settlement structures, residential strategy, and agriculture. Post-processual or cognitive-processual approach, however, is still quite rare in Korean Neolithic studies. Finally author's ongoing study for long-term fluctuation of settlements and population based on cumulative radiocarbon data is introduced.

Key words : Neolithic, Korean Neolithic Societies, excavation reports, radiocarbon dates